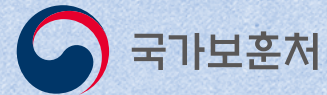


우리가 알아야 할 보훈기념일



'우리가 알아야 할 보훈기념일' 자료는
국가보훈처 교육용 웹사이트 '나라사랑배움터(<http://edu.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보훈기념일



차례

독립

제1호	3·1절 (3월 1일)	06
제2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1일)	12
제3호	광복절 (8월 15일)	18
제4호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26
제5호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32

호국

제6호	현충일 (6월 6일)	38
제7호	6·25 전쟁 (6월 25일)	44
제8호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50

제9호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11월 11일)	56
제10호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7월 27일)	62

민주

제11호	2·28 민주운동 (2월 28일)	68
제12호	3·8 민주외거 (3월 8일)	74
제13호	3·15 외거 (3월 15일)	80
제14호	4·19 혁명 (4월 19일)	86
제15호	5·18 민주화 운동 (5월 18일)	92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외침 울려 퍼지다
“대한독립 만세!”



[출처: 독립기념관]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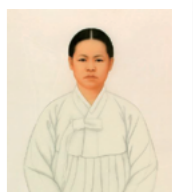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서울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면서 오늘을 기다려왔다.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모두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가고 말았지만, 독립선언서 낭독에 맞춰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만 수십만 명의 시민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제가 경찰을 동원해 만세 시위의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많은 백성이 붙잡혀 가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17세의 독립열사, 유관순을 만나다
“바칠 목숨 하나인 게 슬플 뿐”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얼굴 그림

[출처: 독립기념관]

타임머신 interview



강대한 기자

①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보고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열사님이 만세 운동에 참가하셨을 때 학생이었죠?



유민국 기자

③ 3.1 운동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됐나요?



강대한 기자

⑤ 심하게 탄압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강대한 기자 유민국 기자

⑦ 열사의 뜻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네, 1919년 당시 이화학당 본당과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

④ 독립선언서를 숨겨 서울에서 고등인 천안으로 내리가 만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힘껏 외쳤어요.



유관순 열사

⑥ 아우내 장터 시위 때 일본 헌병이 휘두른 총칼에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나는 체포해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온갖 고문과 회유를 받았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유관순 열사

영화 속 유관순

서대문형무소 '8호실'. 너무 좁아 돌아가며 잠을 자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8호실의 독립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선배로 개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애라 열사, 찻집에서 일한 이옥이 열사, 수원 기생 김향화 등 실존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 옥중 만세를 부른다. 일제의 어떤 억압에도 독립 의지를 꺾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항거: 유관순 이야기 |

3·1절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



월슨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국제연맹을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1919년에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함.

1. 3·1 운동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1919년 3월 1일은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여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날이에요. 3·1 운동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월슨**이 힘이 약한 나라라도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제안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또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 유학생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일제에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펼쳤던 2.8 독립선언과 함께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폭발한 민심 역시 3·1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2. 독립의 의지와 희망을 심어준 3·1 운동

3·1 운동은 종교 단체의 지도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요. 사태가 너무 폭력화할 것을 우려한 민족 대표들이 약속 장소인 **탐골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뒤 스스로 체포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요.

그러나 당시 종로 탐골공원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시민들이 따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면서 마침내 3·1 운동의 물결은 종로를 지나 서울 시내 전역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갔어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모두 나

서 평화적 만세 시위를 펼쳤던 3·1 운동을 일제는 총칼을 앞세워 막으려 했지요.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소원인 독립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갖게 했어요. 그 결실로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했지요. 이 때문에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거지인 상하이를 떠나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여러 곳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려 나갔고,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광복을 이끌었지요.

기념일 속 이야기

>> 1.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은 3·1 독립 선언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독립을 선언했어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쿄 조선 유학생 학우회는 1919년 1월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대회를 열어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뒤 ‘독립 선언서’를 작성했지요. 그리고 2월 8일 선언서를 각국 대사관, 공사관 및 일본 정부, 일본 국회 등에 보낸 다음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유학생 대회를 열어 독립 선언식을 열었어요. 당시 일제가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27명의 유학생이 체포되었답니다.



탐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에 있는 공원으로 사적 제35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19년 일제에 항거하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유명함.

태화관

일제강점기에 경성부에 있던 음식점으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역사적 장소.

» 2. 민족 대표 33인

1919년 3·1 운동 때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가리키는 말로, 천도교(15명), 기독교(16명), 불교(2명) 등 각 종교계 지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 3. 서대문형무소의 미루나무

서대문형무소의 옥사에서 나와 사형장을 향해 걷다 보면 커다란 미루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이 나무는 일제강점기 당시 형무소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이 사형당하기 전 독립을 이루지 못한 애통함에 이 미루나무를 붙잡고 통곡했다고 하여 ‘통곡의 미루나무’라 불리게 되었지요. 또 같은 날 사형장 안쪽에 심어진 미루나무는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많이 서린 탓에 잘 자라지 못했다고 전해진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미루나무. 독립운동가들의 한과 꿈을 담고 있는 나무로 불린다.

기념일 속 명소 탐방!



탑골공원

/ 학생과 일반 백성들이 독립만세를 외친 탑골공원.

-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 🕒 **어떤 곳인가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이다. 탑골공원에서는 한 학생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 🗣️ **꼭 봐야 할 것은?** 3·1 운동 기념탑, 3·1 운동 벽화, 민족 대표인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한용운 선생 기념비

태화관 터

- /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 기념비.
- / 태화관 터에는 현재 태화빌딩이 있다.



-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 🕒 **어떤 곳인가요?** 유명한 음식점의 분점으로, 민족 대표 33인 중 29명이 한자리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곳이다.
- 🗣️ **꼭 알아야 할 것은?** 민족 대표의 모임 소식을 듣고 일본 경찰 80여 명이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했지만 당당하게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시작된 독립의 함성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다.
- 🗣️ **꼭 봐야 할 것은?** '3·1 독립선언광장'. 태화관 터에는 태화빌딩이 있는데, 2019년 광복절에 이곳 일부 땅에 광장을 만들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출처: 독립기념관]

민족 지도자들은 임시정부 수립 뒤 정기 회의를 통해 조국이 독립할 방안을 고민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3·1 만세 운동으로 독립의 가능성을 확인한 민족 지도자들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

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지도부가 하나로 통합됐다. 이들의 활약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가 맡았고, 안창호 선생이 많은 일을 했다. 또 김구, 신규식, 이시영 선생 등이 참여했다. 아직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라는 말을 붙였다.

나라 이름 대한민국은 ‘대한 제국’에서 ‘대한’을, ‘국민이 주인이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의 ‘민국’을 더했다.

1919년 4월 11일~2019년 4월 11일
100년의 역사, “가자, 내일로!”



2019년,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만든 구호와 상징물이야. 멋지지? 그동안 4월 13일을 대한민국 설립일로 기념했는데, 2019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4월 11일로 바뀌었어.



우정사업본부도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했어. 이 우표에는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신년 축하식 장면과 대한민국임시헌장 문구가 담겨 있지. 모두 62만 4000장을 발행했는데, 나도 한 장 갖고 싶네~

기념 주화를 만나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주화야!

은으로 만들어진 은화지. 5만 원짜리 2종류를 만들었어. 모두 6만 개를 만들었으니까, 총 30억 원어치야.



‘긴급! 퀴즈+QUIZ!’

- ① 이 기념주화는 어디에서 발행할까?
- ② 이 기념주화는 정말 돈일까?
- ③ 기념주화도 사고팔 수 있을까?



정답

- ① '한국지폐' '한국은행' '100원' '100원' '100원' '100원' ⑤
- ②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②
-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100원'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3·1 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1. 왜 임시정부를 수립했나요?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독립 국가를 세울 만한 힘이 있음을 세계 여러 나라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했으므로 일제에 맞서 나라 살림을 꾸릴 정부가 필요했어요.

3·1 운동 이후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 안팎에 여러 개의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아직은 정식으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불렀어요. 임시정부는 각기 다른 곳에서 세워졌지만, 모두가 ‘국민’이 주인임을 내세웠답니다. 즉 대한제국을 잇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인 ‘민주 공화제’를 내세웠어요. 공화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다스리는 제도라는 뜻이랍니다. 즉, 국민이 주인이 되어 나라일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이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와 같은 의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 촬영. (1921년 1월 1일)

[출처: 독립기념관]

미랍니다.

임시정부가 여러 갈래로 나뉘다 보니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힘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 임시정부를 통합하기로 했어요. 해외의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끝에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가 대표로 결정됐지요. 마침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일제의 영향력이 덜미치고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유리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설치했대요. 임시정부는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어요. 대한 제국에서 ‘대한’이라는 글자를 따왔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에서 ‘민국’이라는 글자를 가져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자 해외에 세워졌지만,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정부임은 틀림없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훗날 광복을 하게 되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답니다.

2. 임시정부가 가장 비중을 둔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였으며, 안창호가 많은 일을 도맡아 운영했어요. 이 외에도 진작부터 임시정부 수립에 발 벗고 나섰던 신규식, 이시영 등도 함께 참여했어요.

임시정부는 우선 외교 활동에 집중했어요. 서양의 여러 강대국을 대상으로 외교 선전 책자를 발행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렸어요. 또 국제회의가 열리면 대표를 파견하여 독

민주 공화국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정부의 운영은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이 운영하는 국가의 형태.

립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요.

임시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국내와의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비밀 행정 조직망인 연통제를 두어 국내 독립운동 상황을 서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통신 기관인 교통국도 설치했어요. 이들 기관에서는 국내의 행정을 관리하면서 독립운동 정보를 수집했고,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 운동 방향을 지시하기도 했지요. 또,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일제의 철저한 수색과 강력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1921년엔 그 조직이 거의 깨지고 말았답니다. 교통국 역시 연통제와 마찬가지로 1922년 초에는 모두 발각되어 파괴되고 말았어요.

기념일 속 이야기



» 임시정부는 왜 이리저리 옮겨야 했나요?

맨 처음 상하이에 세워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시련을 겪었어요. 임시정부가 세워진 후 더욱 강해진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여기저기 떠돌다 1940년 ‘충칭’에 정착했어요. 본거지를 자주 옮겨 다니는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추진하기는 어려웠어요. 여기에 일제의 횡방으로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해 주던 연결망이 끊기면서 독립운동의 지휘명령이나 자금을 주고받기도 힘들어졌답니다.

임시 정부는 중심을 잃게 됐어요. 이유 중 하나는 임시 정부의 주요 인물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어요. 임시 정부 내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자 많은 사람이 임시 정부를 떠나는 등 임시 정부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당시 임시 정부의 지도자였던 김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의거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봉창, 윤봉길 등 한인 애국단의 활약에 크게 감명 받은 중국 정부는 임시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 주게 된답니다.

임시 정부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강대국들로부터 정식 정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국내에 있는 민중들을 직접 다스리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요. 광복 후 남한에 수립된 정부는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 정부임을 밝혔어요. 그래서 국가의 이름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답니다.

기념일 속 명소 탐방!



백범김구기념관

/ 호창공원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

-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26 (호창동 255)
- 🕒 **관람시간** 하절기 10:00~18:00, 동절기(11월-2월) 10:00~17:00
- ☎ **전화** (02) 799-3400
- 🌐 **홈페이지** www.kimkoomuseum.org/main
- 🔍 **어떤 곳인가요?** 백범김구선생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념관. 1층에 백범의 유년시절부터 일제에 저항하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과정이, 2층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에서의 시기별 활동, 서거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진과 기록물 위주로 전시돼 있다.

호창공원

/ 호창공원에 있는 3의사(윤봉길·이봉창·백정기)의 묘.



-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호창원로 177-18(호창동)
- 🕒 **관람시간** 06:00~21:00
- ☎ **전화** (02) 712-3043
- 🔍 **어떤 곳인가요?** 어린 나이에 죽은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와 몇 달 후 죽은 그의 어머니 의빈 성씨의 무덤(호창원)이 있으나 일제가 주둔하면서 두 무덤을 강제로 옮기고, 이름을 호창공원으로 바꾸었다.
- 📌 **꼭 알아야 할 것은?** 광복 이듬해(1946년) 독립운동가 윤봉길·이봉창·백정기 등 세 명의 의사를 모시면서 독립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세 의사를 이곳으로 모신 사람은 백범 김구. 세 의사는 1932~1934년 일본 감옥에서 순국했는데 거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이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광복, 그날이 왔다!”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
전 국민이 만세를 외쳤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라디오를 듣던 기자들의 귀에 놀라운 내용이 들려왔다. 일본 왕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1919년 3월 방방곡곡에서, 그 해 4월 머나먼 이국땅 중국 상하이에서, 그리고 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의거의 현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목놓아 외치던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나 그리던 ‘그날’이 마침내 오다니!

오늘,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내 나라, 내 땅, 내 국기, 내 말을 되찾은 날이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다. 식민 지배 아래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아온 것이다. 잊지 말자.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거저 얻은 게 아니다.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열사와 국민의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 광복이란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함.

1. 광복절은 어떤 날인가요?

광복절은 말 그대로 빛(光)을 되찾은(復) 날이에요. 즉,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날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에 국권을 빼앗겼어요.

이후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독하게 통치했지요. 이에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평화로운 만세운동으로 전 세계에 독립 의지를 알렸어요. 하지만 일제는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못 하게 했어요.

우리 민족은 멈추지 않았어요. 많은 애국지사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년 4월 11일)를 수립하고 만주 일대에서 일제와 전쟁을 벌였어요. 국내에선 수많은 독립투사가 일본 경찰과 싸웠고, 일제와 손잡은 친일파를 처단하기도 했어요.

1932년에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흥커우 공원(지금의 루쉰 공원)에서 일본군 총사령관을 향해 폭탄을 던졌으며,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지요.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중국의 백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젊은 청년이 해냈다고 극찬했어요. 또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1941년 12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독일과 일

도
문
한
가
디

국권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으로 주권 및 통치권 등을 의미.



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의 모습.
[출처: 독립기념관]

윤봉길 의사 의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전폭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쟁이 끝난 뒤 일본 처리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을 때,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은 중국의 장제스(장개석)를 만나 자주 독립의 의지를 보였어요.

본에 **선전 포고**했어요. 한국광복군은 1943년 인도와 버마(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작전을 펼치기도 했지요. 일제의 패망이 다가오자 한국광복군은 미군에게 군사훈련을 받아 한반도에 **진공**하려 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일제가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에 항복했기 때문이죠. 지난 35년간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을 벌였던 독립투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연합국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지 못했을 거예요.

2. 우리나라는 어떻게 독립하게 되었나요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일본 왕 히로히토의 힘없는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국민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대체 히로히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가 미국·영국·중국의 공동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했어요. 히로히토의 이 말을 알아들은 몇몇 사람들은 기쁜 표정을 지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역시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독립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지요.

우리 민족이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위해 기울인 끊임없는 노력과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들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에서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앞으로 일제가 패망할 경우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도 의논했지요.

일제의 **패망**이 현실로 다가온 1945년 7월 26일에는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가 독일 포츠담에 모여 일본에 대해 마지막 경고를 보냈어요.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로 들어설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자 그제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지요.

3. 1945년 8월 15일, 서울이 조용했다는 게 정말 인가요?

사실 우리가 보는 광복절 사진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와 온 거리를 뒤덮은 사진들은 모두 8월 16일 날 찍힌 거예요. 정작 해방된 8월 15일 서울은 조용했어요.

일본 왕 히로히토가 항복을 발표한 날이었는데, 왜 조용했느냐고요?

그건 바로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복한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지 못했고, 또 히로히토의 말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념일 속 이야기

» 한국광복군 진공 작전

1945년 5월, 한국광복군은 중국 시안에 위치한 OSS 훈련장에서 한반도 진공 작전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며 훈

선전 포고

다른 나라에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진공

나아가 공격함.

수뇌부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패망

싸움에 져서 망함.

련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한 뒤 항공기나 잠수함으로 한반도에 침투하여 첩보활동과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여 일제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임무였지요.

하지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터뜨려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한반도 진공 작전이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창설 기념식(1940년 9월).

[출처: 독립기념관]

일본은 연합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에 미국은 더 이상의 경고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연합국의 경고를 받아들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 수많은 일본인이 죽었지만, 이 가운데 약 10%는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 8월 15일과 16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몽양 여운형 선생은 독립운동가예요.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만나자는 요청으로 여운형 선생이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선생을 보며 말했어요.

“지난날 조선과 일본 두 민족이 합한 것이 조선 민중에 합당하였는가 아닌가는 말할 수 없고, 오늘날 나누는 때에 서로 좋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또 오해로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중을 잘 지도하여 달라.”

이 요청에 선생은 히로히토가 이날 12시에 라디오 연설 때 연합국 수뇌부들의 경고를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보며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해방을 맞은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첫째, 전 조선에 있는 정치 경제범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서울의 8·9·10월의 3개월 치 식량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넘겨 달라.

셋째, 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에 당신들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라.

넷째, 학생 훈련과 청년 조직에 간섭하지 마라.

다섯째,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간섭하지 마라.

“내가 말한 조건들을 들어준다면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알겠소, 몽양 선생. 내 그리하리다.”

8월 16일이 되자 약속했던 정치·경제 사범들이 풀려났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야 해방됐음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났는지 태극기를 꺼내 들고는 거리로 몰려나갔어요. 일부는 태극기를 그리지 못해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에 태극과 괘를 그려 넣고는 ‘대한 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지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많은 사람이 몽양 선생에게 연설을 부탁했고, 선생은 휘문고등학교에서 해방된 조선에 대해 연설했어요. 사람들은 몽양 선생의 연설을 듣고 비로소 해방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몽양 선생은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1947년 7월 19일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태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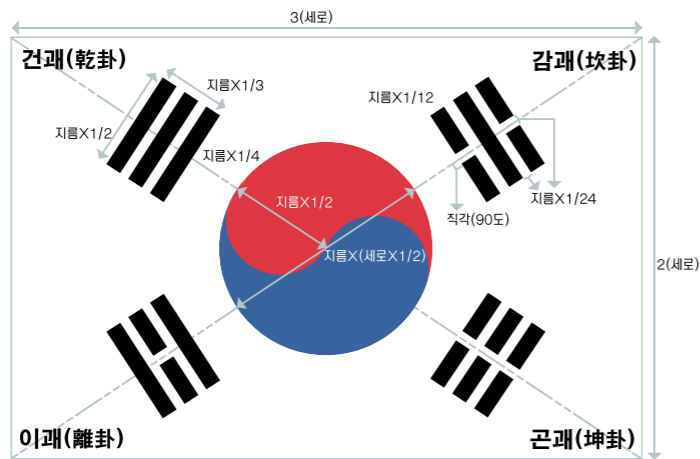
광복절은 일본에 잃어버렸던 국권을 되찾은 날이에요. 길고 긴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하다가 빛을 되찾으며 맞은 광복절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국경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광복절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일본으로부터 고대하던 독립을 맞아 드높이 휘날린 것이 태극기였지요. 광복의 그날을 되새기며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태극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적색과 청색의 태극이 중앙에 도안 되어 있고, 사방 모서리의 대각선상에는 건(乾)·곤(坤)·이(離)·감(坎)의 사괘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태극은 우주 생성 원리를 상징해요. 태극의 빨간색은 존귀와 양(陽)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희망과 음(陰)을 의미하는 우주관을 담고 있어요. 사괘의 건은 하늘을, 곤은 땅을, 이는 불을, 감은 물을 의미한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아요.



기념일 속 명소 탐방!



독립기념관

📍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

🕒 **관람시간** 3월~10월 09:30-18:00, 11월~2월 09:30-17:00(월요일 휴무)

☎ **전화** (041) 560-0114

🌐 **홈페이지** www.i815.or.kr

🔍 **어떤 곳인가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열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물이 많아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정한 뒤 보는 것도 관람 방법. 일제강점기 시련을 살펴보는 제2전시관,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을 만날 수 있는 제3전시관, 3·1운동을 다루고 있는 제4전시관, 독립군 활동과 주요 인물을 처단한 순국선열을 만날 수 있는 제5전시관이 있다.

📌 **꼭 알아야 할 것은?**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건립하기 시작했다. 5년의 준비를 거쳐 1987년 8월 15일 광복절에 문을 열었다. 독립과 관련된 사건, 인물에 대한 자료는 어느 곳보다 많다. 건립 이후 모든 전시관을 최첨단의 생동감 넘치는 전시물로 계속 바꾸고 있다. 전시물 못지않게 아름다운 숲과 자연도 만날 수 있어 가족이 함께 가볼 만하다. 유아 체험장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체험으로는 ▶외쳐라! 만세 ▶준비 땅! 나도 독립운동가 ▶세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탕! 탕! 나도 독립군 등이 있다.



스토리
극장

“왜 너희는 사과를 모르니?”

나주-광주 간 통학열차가 운행되는 나주역. 여기서 벌어진 일본인 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 사건. 피해자 여학생의 사촌오빠인 박준채는 가해자인 후쿠다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광주 학생들이 모여 외치다 “일본 제국주의 물러가라!”



[출처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1929년 11월 3일, 광주 시내에 학생들이 모여 항일 시위를 하고 있다.

차별 항의에서 항일로

“물러가라, 일본 제국주의는 물러가라!”

“체포한 학생을 무조건 석방하라!”

1929년 11월 3일 광주 시내에 울려 퍼진 함성. 학생들이 독립과 항일 운동의 중심에 선 것이다. 지난 10월 말 전남 나주에서 일본 중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희롱하고 사과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분노가 시발점이 되었다. 이 건으로 두 나라 학생이 싸움을 벌였는데, 일본 경찰

이 일방적으로 일본 학생들의 편만 들면서 분노가 쌓였다. 그리고 오늘.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일본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 후 예정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일본 경찰의 차별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인근 지역으로 퍼졌고, 항일운동 민간단체인 신간회는 전국적인 항일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1929년 3월 30일. 일본 학생은 사과를 거부한다. 사과 여부를 두고 두 나라 학생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진다. 이때 경찰은 “일본 무죄, 조선 유죄”라며 일본인 편만 드는데...

나주 학생운동 기념관 기록화



일제의 차별과 우리말 사용 금지 등 쌓여있던 울분을 폭발시킨 광주 학생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항일 시위를 펼친다. “차별하지 마라!” “일본은 물러가라!”

광주 학생운동 기념관 기록화



이 시위는 항일 운동 민간단체인 신간회의 지원으로 전국적인 항일 운동이 된다. 일제는 무차별 폭력과 체포로 시위를 저지했지만, 3.1 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나주 학생운동 기념관 디오라마(모형)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진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 학생의 날, 반공의 날 등 여러 가지로 불리다 2006년부터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됨.



6·10 만세 운동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 일어난 학생 중심의 만세 운동. 1919년 3·1 운동, 1929년 광주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학생 독립운동으로 꼽힌다.

1. 광주 학생독립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1929년 무렵 조선 사회는 온통 일제에 맞서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 역시 항일 투쟁의 힘을 꾸준히 키워나갔어요. 일본인 교사들의 우리 민족에 대한 모욕과 심한 차별 대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제에 맞섰답니다.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에 맞서 1920년대 초부터 서서히 시작된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1927년부터 1928년에 걸쳐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답니다. 많은 학생 단체들이 **6·10 만세 운동** 때 큰 활약을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모두 활동이 어렵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뜻 있는 학생들은 항일 비밀 단체를 조직했어요.

광주에서는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항일 투쟁이 계속되었어요. 평소 일본 학생들은 조선인들을 업신여기고 몹시 거만하게 굴었기에, 조선 학생들과의 충돌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그러던 1929년 10월 30일. 광주를 떠난 통학 열차가 나주역에도 착했을 때 일본인 중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의 땀을 잡아당기며 희롱을 했어요.

조선인 여학생은 분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꾀 참았다가 사촌동생인 박준채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화가 난 박준채는 이튿날 일본인 학생 후쿠다를 불러 점잖게 타일렸어요. 그러나 일본인 학생

후쿠다는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것에 대한 사과를 거절했어요. 이 때문에 결국 조선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싸움을 말리러 나온 일본 경찰은 일본 학생들은 그냥 두고 조선인 학생들만 때리고 가두었어요. 학생들은 이 일을 참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학생들은 6·10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으니 더더욱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2. 신간회 지원으로 전국으로 확산

11월 3일은 **메이지** 일본 왕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업적을 기념한다고 학교에서는 수업 대신 기념식만 했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신사에 참배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학생들은 나주역에서 있었던 여학생 희롱 사건에 대해 일본 학생들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에 항의했어요. 학생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어요.

학생들이 크게 들고 일어서자 일제는 몹시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들은 학교에 휴교 조치를 내리고, 많은 학생을 가두었어요. 한편 신간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광주 학생들의 항일 운동을 조선 민족의 항일 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일제는 이를 막기 위해 신간회 간부들을 모조리 잡아갔어요. 그럴수록 학생들의 시위는 점점 더 기세를 올렸어요.

“물리가라, 일본 제국주의는 물리가라!”

“체포한 학생을 무조건 석방하라!”

3. 3·1 운동 이후 최대의 독립 만세 운동으로 발전

일제는 학생들을 다치는 대로 잡아들였어요. 학생들이 잡혀가자 학부모들도 학생들과 함께 일제에 맞섰어요. 광주의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퍼져 나갔어요. 먼저 가까운 목포, 나주, 함평 등 전



메이지

일본의 제122대 왕(재위 1867~1912).

라남도 지역으로 전해져 그 지역 학생들의 항일 투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얼마 뒤, 서울의 여러 학교에서도 일제히 항일 운동이 벌어졌고 1930년 1월에는 서울 시내 15개 학교의 학생 3천여 명의 항일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광주에서 시작하여 서울로 번진 학생들의 항일 운동 소식은 금세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갔어요. 소식을 전해 들은 각 지방의 학교에서도 항일 운동이 잇따랐고, 국내뿐 아니라 만주의 간도에서도 조선 학생들의 시위운동이 일어났어요. 학생 만세 운동은 오늘날의 초등학교인 보통학교에까지 번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전국 방방곡곡이 만세 소리로 들끓게 되었답니다.

일제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러나 항일 투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광주에서 불붙기 시작해 전국으로 번져간 학생 운동은 이듬해인 1930년 3월까지 줄기차게 계속 되었답니다.

광주에서 비롯된 항일 학생 운동은 다시 한 번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강한 애국심과 자주독립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참가함으로써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독립운동으로 발전했어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독립운동의 주인공임을 확인하였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 신간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념과 관계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손잡고 만든 항일 운동 단체다. 1927년 2월에 만들어져 1931년 5월까지 활동했다. 전국 주요 지역은 물론 해외에도 지부가 설치돼 항일 운동을 전개했다. 회원이 많을 때는 4만여 명이나 되었으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신간회는 1931년 5월 16일 창립대회 이후 처음으로 연 전체 대회에서 스스로 해산을 의결했다. 이후 새 단체를 조직하려 했으나 일제 경찰의 압력으로 완전히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신간회 설립을 보도한 신문.

기념일 속 명소 탐방!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 📍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화정동)
- 🕒 **관람시간** 평일(화~금) 09:00-18:00, 토·일 09:00-17:00
- ☎ **전화** (062) 221-5531~3
- 🌐 **홈페이지** gsim.gen.go.kr
- 🔍 **어떤 곳인가요?** 전시실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 원형무대도 갖추고 있다. 일제의 억압을 뚫고 불같이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려고 1967년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세웠고, 2004년 지금 자리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세웠다. 나라사랑 역사체험학습, 전시안내자 자원봉사자 양성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 / 나주학생독립기념관 외부 모습.
- / 전시관 내부. 당시 등교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26(죽림동)
- 🕒 **관람시간** 평일 09:00-18:00
- ☎ **전화** (061) 334-5393
- 🌐 **홈페이지** www.najusim.or.kr
- 🔍 **어떤 곳인가요?**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의 하나인 학생독립운동 진원지 '옛 나주역'에 당시의 역사를 생생하게 일깨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학생독립운동의 과정과 나주지역의 식민지적 상황, 나주 농업보습학생과 나주보통학생의 만세사건 등을 주제로 구성돼 있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나주 학생과 일본 학생들의 충돌 이후 불꽃처럼 번져간 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출처: 독립기념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왼쪽부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강대한 기자

193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정했어. 오늘 11월 17일이야. 순국선열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왜 11월 17일일까?

순국선열은 광복되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야. 안중근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처럼.



이나라 기자



심사량 기자

11월 17일은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은 을사늑약(1905년)이 체결된 날이야. 이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지정했다고 해.

무력으로 항거하다 의로운 죽음을 택한 의사, 맨몸으로 저항하다 순국한 열사 모두 나라를 같이 사랑하신 분들이야. 그들의 뜻을 잊지 말아야 해.



유민국 기자

꼭 기억해요!
순국선열들이 남긴 ‘말’



안중근 의사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 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10년 2월 14일 남긴 유언 / 안중근 의사 글씨체)



조마리아 여사 (안중근 의사 어머니)

“네가 만약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정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옥에 갇힌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 / 안중근 의사 글씨체)



윤봉길 의사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해구에 깃발을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윤봉길 의사 유언 / 윤봉길 의사 글씨체)



이봉창 의사

“선생님. 제 나이 이제 서른하나입니다. 앞으로 서른한 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즐거움이라면 지난 30년 동안 모두 누렸습니다. 제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성스러운 일)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백범 김구에게 거사 의지를 밝히며 / 김구 선생 글씨체)

순국선열의 날

193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얼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법정 기념일.

도움 한마디

을사늑약

1905년에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원흉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

옥고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겪는 괴로움.

1. 왜 을사늑약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나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은 광복 후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추모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다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국가보훈처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사실 11월 17일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겼던 **을사늑약**(1905년)이 체결된 날이에요. 당시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11월 17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이유는 이날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빼앗긴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요. 동시에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순국하신 많은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서랍니다.

2.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순국선열은 일제에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말해요. 1909년 10월 26일 우리 민족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안중근 의사,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혹독하게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 등이 대표적인 순국선열입니다.

애국지사는 어떤 분들을 말할까요. 일제에 맞서 빼앗긴 주권을 찾으려 한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광복(1945.8.15)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순국선열로, 살아서 광복을 맞이한 분들은 애국지사로 구분하고 있어요. 가령 광복되기 전에 돌아가신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은 순국선열에 해당하고, 광복 이후까지 살아 계신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 애국지사가 된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 위대한 어머니와 불의에 맞선 아들

이토 히로부미 저격 후 체포되어 사형을 앞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면회를 하러 가는 안중근 의사의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라고 했대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탄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들이 신념과 뜻을 꺾지 않기를 당부했지요.

도움 한마디

법률상 순국선열의 의미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서는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 피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 외에서 일제의 국권 피탈(억지로 빼앗김)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 때문에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를 말함.



안중근 의사가 두 동생 정근, 공근 및 빌렘신부와 함께 마지막 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어머니의 뜻을 전해 들은 아들 안중근 의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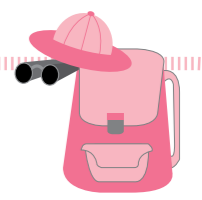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저녁 문안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
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주시니 훗날 영원히
천당에서 만나 뵈을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뜻을 꺾지 않겠다는 안중근 의사의 굳건한 신념과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애
정이 묻어나는 편지예요. 그 어머니에 그 아들답고요. 사형 집행일인 1910년 3월 26
일 오전 10시, 31세의 나이로 순국한 안중근 의사 그리고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는 이후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답니다.

기념일 속 명소 탐방!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광복 후에도 교도소로 쓰이다 역사관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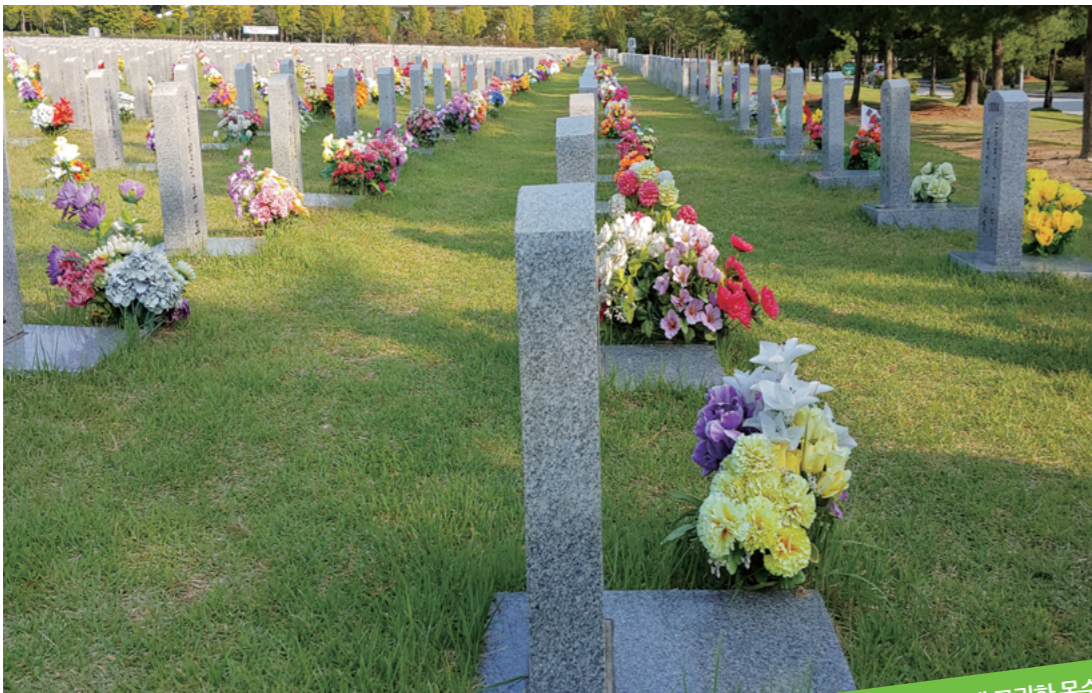
- 📍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번저동)
- 🕒 **관람시간** 09:30-18:00(1월 1일, 설 추석 당일 휴관)
- ☎ **전화** (02) 360-8590
- 🌐 **홈페이지** www.sscmc.or.kr

❓ **어떤 곳인가요?** 1908년 10월 일제가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의병탄압이 그 목적이었다.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바뀐 뒤 이곳은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 한국의 국권을 찾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민족 수난의 현장이다.
당시 이곳에는 특수고문실 등이 있는 감방과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한 사형장과 일반 사무실, 교회당, 공장, 창고, 취사장, 식당, 세면장, 감시탑과 운동장 등의 시설이 있었다.
광복 이후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로 불리다 교도소가 1987년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한 뒤 박물관으로 이용됐다. 1998년 과거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재단장하여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부 모습.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일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출처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일은 우리나라의 오늘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이다.

♥ 현(顯) : 바깥으로 꺼내 남에게 내보임 ♥ 충(忠) : 충성, 남을 위해 정성을 다 바치는 행위나 마음가짐

오늘은 현충일(顯忠日).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조국의 부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군인과 순국선열들을 생각하고, 희생의 가치를 되새겨 봅시다.

오늘 하루는 조기를 달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이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러져간 그들을 생각하면서.



현충일 이모저모



6월 6일 현충일. 조국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에요.



과거 모내기하는 절기인 '망종'엔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1956년 현충기념일을 정할 때의 망종은 6월 6일. 이날이 현충일로 정해졌어요.



현충일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합니다.



조기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요. 오전 10시에는 1분간 묵념!



6·25 전쟁,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현충일...

6월은 호국보훈 기념일이 참 많아요.

“님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호국영령께 감사의 표현을 남겨봅시다.

현충일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 1956년 4월 법정 기념일로 제정.

도 무늬 한 다 기

고려사

1449년(세종31)에편찬을 시작해서 1451년(문종 원년)에 완성된 고려 시대 역사서.

현충

고려 제8대 왕.

청명과 한식

청명 24절기의 다섯 번째 날로, 조상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하는 시기. 한식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불여진 날.

1. 현충일은 왜 6월 6일로 정해졌나요?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해요. 우선 6·25 전쟁이 6월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또 **고려사**라는 책에 의하면 고려 **현종** 5년 6월에 왕은 국경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정중하게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해요. 또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청명과 한식**에 벌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망종은 24절기 중에서 9번째로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하는 시기예요. 보리를 수확하는 기쁨과 함께 가을에 풍년이 들게 해주기를 바라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지요.

1956년 현충 기념일을 6월 6일로 정할 당시 망종이 6월 6일이었고 자연스럽게 6월 6일이 현충 기념일이 되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현충일이 된 것은 1975년 12월부터랍니다.

2. 현충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태극기를 달아요. 태극기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기**를 달아요.

가정에서는 보통 밖에서 보는 기준으로 대문(혹은 난간)의 가운데나 왼쪽에 달지요. 태극기를 달 때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전 10시에는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려요. 이때 우리 어린이들은 1분간 묵념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또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거나 현충탑, 충훈탑 등에 가서 추념하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서울시 동작동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있고, 대전에도 국립대전현충원이 한 곳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장에 있는 충훈탑 등에서도 현충일 추념식이 개최된답니다.

3. 6월은 왜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 6일 현충일과 6월 15일 제1연평해전, 6월 25일 6·25 전쟁과 6월 29일에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이에요.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싸운 달이 6월이기에, 이를 기리고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 부르고 있지요.

여기서 잠깐!! **함께 배워요**



현충일 노래 (조지훈 작사 임원식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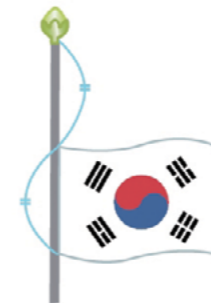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임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 / 날이 갈수록 아아 그 충성 새로워라

국기 다는 법

경축일과 평일



현충일, 국가장 기간일 때



현충일 국기 게양 시간

- 일반 가정은 오전 7시~오후 6시
- 관공서, 공공기관은 오전 7시~오후 6시 (24시간 게양 가능)

도 무늬 한 다 기

조기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 큼 내려서 다는 국기.

6월 01일 ~ 6월 10일 : 추모 기간

6월 11일 ~ 6월 20일 : 감사 기간

6월 21일 ~ 6월 30일 : 화합과 단결의 기간

기념일 속 이야기



» 현충일과 관련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1950년 6월, 진태는 어머니와 동생 진석, 그리고 약혼녀 영신과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진태의 가족은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게 돼요. 그러나 대구역 근처에서 동생 진석이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군용열차에 오르게 되고, 진석을 찾아오기 위해 열차에 오른 진태 또한 군용열차에 실려 가게 된답니다.

형제가 함께 전쟁터에 보내지자, 형 진태는 동생을 군대에서 내보내기 위해 대대장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진태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야 동생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앞에 나서게 되고, 오직 동생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쟁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형을 이해할 수 없는 동생 진석은 점차 형과 갈등하게 됩니다. 동생인 진석이 국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오해한 진태는 이번에는 북한군 부대장이 되고 맙니다.

이후 진석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형인 진태가 북한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나가 형을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태는 진석을 살리기 위해 결국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고, 50여 년이 지난 뒤에 유골 발굴 작업 현장에서 유해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이와 같은 민족의 상처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념일 속 명소 탐방!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서울현충원 조형물.
/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국립서울현충원은 일제 침략, 6·25 전쟁, 월남전 등 민족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고 이들을 기리는 장소다. 6·25 전쟁으로 발생한 많은 전사 장병의 안식을 위해 건설됐지만, 점차 대상이 확대되어 지금은 임시정부 요인, 국가 원수, 애국지사, 경찰관 등 다양한 분들이 안장되었다.

- 📍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 🕒 **개방시간** 연중무휴. 경문 동문 통문(5개소) 06:00~18:00
- ☎ **전화** (02) 748-3762
- 🌐 **홈페이지** www.snmb.mil.kr
- 👁 **꼭 봐야 할 것은?** 시야 가득한 호국 영령의 묘역,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호국전시관과 유품전시관.

국립대전현충원

/ 국립대전현충원의 상징인 현충문.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기능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같다. 1955년에 설치된 국립서울현충원이 좁아지자 정부는 중부지역에 새로운 현충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1976년 4월 대전으로 결정하고, 조성에 나서 1979년 8월 완공했다.

-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 🕒 **개방시간** 3월~10월 06:00~18:00, 11월~2월 07:00~ 18:00
- ☎ **전화** (042) 718-7114
- 🌐 **홈페이지** www.dnc.go.kr
- 👁 **꼭 봐야 할 것은?** 현충탑 참배와 묘역 둘러보기, 나라사랑 영화관람, 호국철도기념관 등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체험.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 기습 남침
민족의 비극 6·25 전쟁



[출처: 전쟁기념관]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대한민국 국난 극복의 대표적인 역사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도선과 동해안 등 11개 지역에서 경계를 넘어 남한을 공격했다. 북한은 사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탱크, 비행기를 마련하는 등 전쟁 준비를 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시작된 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다.

6월 25일, 그 이후

6·25 전쟁은 3년 1개월(1,129일) 동안 계속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췄다.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세계 22개 나라에서 연인원 195만여 명의 유엔군이 참전해 3만 8천 명이 전사했다. 이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꼭!
알고 가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6·25 전쟁 3대 전투

북한군이 남북 경계선이던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전개한 불법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하루 아침에 전쟁터가 되고 말았어요.
군사력에서 북한군에 비교할 수 없는 열세를 보이며 버랑에 몰린 대한민국.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구국의 3대 전투'가 있어요.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장진호 전투. 그 현장 속으로 출발~

<6·25 전쟁 중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3대 전투'>

2 인천상륙작전

- 1950.9.15.
-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하던 상황에서 중심부인 인천에 상륙해 북한군을 고립시킨 작전
- # 불리하던 전세 한번에 뒤집다



3 장진호 전투

- 1950.11.27.~12.11.
- 미 해병 제1사단 1만8천명이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12만 명의 중국군과 벌인 전투
-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흥남 철수도 실패
- # 흥남 철수작전의 원동력 (아군 10만 5천명, 피난민 9만 1천명 흥남 철수 성공)

1 다부동 전투

- 1950.8.13.~9.24.
-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일대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과 벌인 전투
- 북한군의 진격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다
- # 대구·부산 지킴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북 경계선이던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6·25 전쟁. 그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하고,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훈에 감사드리며, 전 국민이 안보 의지를 다지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정한 기념일.

도 유 한 다 기

정전협정

전쟁 중인 나라들이 서로의 합의에 따라 전투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맺는 약속.
* 6·25 전쟁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짐.

우방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1. 6·25 전쟁은 얼마나 지속됐나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무려 1,129일(3년 1개월)간 계속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멈췄어요.

6·25 전쟁 과정에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라는 큰 뜻을 위해 나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군(국제연합군)이 결성되고, 우리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지요. 6·25 전쟁에 전 세계 22개국에서 연인원 195만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참전했어요. 이 가운데 3만 8천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참전국 중 미군은 179만 명이 참전하여 유엔군의 90% 이상을 차지했어요.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우방과 함께 북한의 침략을 물리친 국난 극복의 역사가 됐답니다.

특히, 6·25 전쟁 기간 중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3대 전투가 있어요.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빼앗긴 우리의 국토를 다시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준 다부동 전투, 희박한 성공 확률을 뒤엎고 완벽한 성공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한 것은 물론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인천상륙작전, 흥남 철수작전의 원동력이 된 장진호 전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2.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꾼 3대 전투는 무엇인가요?

(1) 다부동 전투(1950. 8. 13.~1950. 9. 24.)

1950년 8월 13일부터 경북 칠곡군 다부동 일대에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국제연합군)이 북한군과 벌인 전투로, 6.25 전쟁 중 가장 격렬했던 전투로 손꼽혀요. 당시 패전을 거듭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우리 국군으로서는 다부동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구와 부산까지 적에게 내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지요. 42일 동안 치열한 격전을 벌인 끝에 아군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다부동을 지켜냈답니다.

(2) 인천상륙작전(1950. 9. 15.)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에 빛나는 위대한 작전으로 유명해요. 사실상 인천은 워낙 물살이 빠른 데다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상륙 작전을 펼치기에는 적당치 않은 곳이었어요. 당시 작전 성공 확률이 5천 분의 1로 여겨졌을 정도였지만, 맥아더 사령관은 주위의 반대와 우려를 물리치고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어요.

당시 동원된 함정은 261척, 군 병력 7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작전이었죠. 인천상륙작전 성공은 서울 탈환으로 이어져 아군에게 불리했던 전쟁 상황을 뒤집는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구국의 3대 전투



(3) 장진호 전투(1950. 11. 27.~1950. 12. 11.)

장진호 전투는 인천상륙작전에서 주력 부대로 활약했던 미 해병 제1사단 1만 8천 명이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중국군 12만 명과 싸운 전투예요. 당시 미군은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밀려오는 중국군과 맞서 싸웠어요.

미군을 괴롭힌 건 중국군만이 아니었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살인적인 추위에 동상에 걸리는 병사가 수도룩했어요. 하지만 미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국군과 싸워 마침내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했지요.

장진호 전투는 중국군의 남하 속도를 저지하여 10만 5천 명의 아군과 9만 1천 명에 이르는 피난민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 흥남철수작전의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영웅 로페즈 중위

6.25 전쟁이 일어나자 보병 장교로 한국 파병에 지원한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는 미 해병 제1사단 5연대 1대대 A중대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전쟁에 참여했어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그는 연안에 상륙한 뒤 선두에서 부대원을 이끌었어요. 가장 먼저 방어벽을 넘는 그의 모습은 사진으로 남아 현재까지도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호벽을 넘은 뒤 북한군 병커에 수류탄을 던지려던 로페즈 중위는 적이 쏜 총탄에 맞아 핀을 뽑은 수류탄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대로 수류탄을 놔뒀다간 부대원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다친 몸으로 기다시피 하여 수류탄을 그대로 끌어안고 산화했지요. 기념비적인 사진을 촬영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중군 기자 제리소프는 기사를 통해 “용기 있는 죽음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말로 로페즈 중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기념일 속 명소 탐방!



전쟁기념관

/ 전쟁기념관의 모습.
6.25 전쟁의 아픔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9 (용산동1가)
- 🕒 **관람 시간** 09:30-18:00(휴관일 : 매주 월요일)
- ☎ **전화** (02) 709-3114, 3139
- 🌐 **홈페이지** www.warmemo.or.kr

칠곡호국평화기념관

/ 경북 칠곡에 있는 호국평화기념관.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를 볼 수 있다.

- 📍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 🕒 **관람 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휴관일 :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 ☎ **전화** (054) 979-5502
- 🌐 **홈페이지** chppm.chilgok.go.kr



다부동전적기념관

/ 6.25 3대 승리로 꼽히는 다부동전투 기념관.

- 📍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
- 🕒 **관람 시간** 09:00-18:00(휴관일: 설 추석 명절)
- ☎ **전화** (054) 973-6313
- 🌐 **홈페이지** www.dabu.or.kr

국토수호의 결의를 다지다 '서해 수호의 날' 탄생



[출처 :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던 참수리 357호의 모습 옆에 총탄자국이 보인다.

2016년 3월 25일. 오늘은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이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999년 6월 15일, 북한군 경비정이 서해 연평도 인근 NLL(남북한의 해양 경계선)을 침입하면서 제1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한일 월드컵 열기가 뜨겁던 2002년 6월 29일, 북한군이 서해에서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호 고속정을 공격했다. 제2연평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등 서해에서 도발 행위를 계속해 긴장을 높였다.

정부는 북한군의 잇따른 공격에 맞서 희생한 영웅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을 지정했다. 천안함 피격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범국민 안보 의식을 북돋우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됨.

1. '서해수호의 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제1연평해전 이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이에 맞서 우리의 서해를 지키며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의 기록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예요. 또한, 서해수호의 날에는 6·25 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북한의 도발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새겨 보자는 뜻도 함께 담겨 있어요.

서해수호의 날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정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서해를 지키던 우리 해군 용사 46명이 전사함으로써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일(3월 26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했기 때문이랍니다.

2. 북한의 서해안 도발

(1) 제2연평해전

온 국민이 한일 월드컵의 함성으로 들떠있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서해 NLL(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해양 경계선)을 침범하여 우리의 참수리 357호 고속정을 공격했

도 무 한 마 더

북방한계선(NLL)

정전 이후 서해에 그어진 해상 경계선.

경비정

바다나 하천의 연안을 살피고 지키는 작고 빠른 함정.

잠수정

바닷속에 들어가 우리의 영해를 살피는 배.

어요. 우리 해군은 함교, 조타실 등이 피격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조국과 바다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전투 의지와 필승의 신념으로 북한 경비정을 격퇴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싸웠던 그들은 제2연평해전의 영웅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 해군은 조국의 바다를 수호할 유도탄 고속함(PKG·400t급) 6척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 용사 여섯 명의 이름을 각각 붙였습니다.

(2)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천안함은 1,200톤급 군함으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해상을 경계하는 군함이었어요. 그러나 기습적인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은 침몰당하고 말았어요. 구조에 나선 우리 군은 생존자 58명을 즉시 구조했지만, 서해 최전선을 지키던 46명의 우리 용사와 실종 장병 구조작업 중 한주호 준위가 전사했어요, ‘천안함 피격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6·25 전쟁 이후 북한 도발에 의한 우리 군의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되었지요.

(3)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천안함 피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같은 해 11월 23일 오후 2시, 북한은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일으켰어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 서해 연평도는 맨눈으로도 북한 땅이 보일 만큼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평화롭던 연평도는 북한이 쏜 포탄으로 불바다가 되었지요.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처음

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한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아무런 대비가 없는 민간인이 사는 곳을 포격함으로써 우리의 해병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수십 채의 건물과 나무가 불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군에 맞서 대응 사격을 하여 북한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바친 박동혁 병장**

2002년 6월 29일에 일어난 제2연평해전으로 우리나라 해군 6명이 전사했어요. 대부분의 전사자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당일에 목숨을 잃었지만, 한 병사는 상처를 입고 병상에 있다가 9월 20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박동혁 병장이에요.



제2연평해전에서 최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한 박동혁 병장의 흉상.

박동혁 병장은 부상자를 돌보는 의무병이었어요. 국제법상 의무병은 공격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오히려 의무병이 더 위험해요. 부상당한 전우를 돌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그만큼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당시 적의 공격을 받아 부상당한 전우들을 보살피던 박동혁 병장 역시 적탄에 맞았지만, 그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다른 부상병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온몸에 박힌 수십 개의 파편은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배 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부상자들을 돌봤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박동혁 병장은 84일간의 투병 끝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낸 가슴 아픈 기억을 편지글로 남겼답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오늘도 엄마는 너의 이름을 불러본단다.
 네가 너무나 아파했기에 쓰리고 저미어 오는 가슴 가늘 길이 없구나.
 중환자실에서 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눈 뜨고는 볼 수 없었고. 성한 데라고는 머리고 왼손뿐이었어.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 하는 아들. 안쓰럽고 불쌍하고 처참했다.
 다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왼손으로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흐느낀다.
 주렁주렁 매달린 약병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은 상처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못했다.
 엄청난 상처를 뒤로 한 채 9월 20일 새벽,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동혁아, 세상에 태어나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는 가버렸지만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오늘도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해가 저문다.
 총소리, 전쟁 없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자.”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니 이경진 씀

기념일 속 명소 탐방!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

/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 있는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서해수호관).

- 📍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122
- 🕒 **관람시간** 10:00, 13:00, 15:00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과 설 추석 연휴)
군사시설이므로 견학하려면 최소한 3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함
- ☎ **전화** 안보 견학 지원 담당 (031) 685-4123
- 🌐 **홈페이지** www.navy.mil.kr
- 🔍 **어떤 곳인가요?** 평택 해군 제2함대 안보공원(서해수호관)은 천안함 피격, 제1, 2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던 참수리 357호정,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당한 천안함 등 북한의 서해 도발을 그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품과 전투 당시 전사한 용사들의 유품까지 함께 전시돼 있다.
- 👁 **꼭 봐야할것은?** 서해수호관, 천안함기념관,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정, 인양된 천안함 선체를 직접 볼 수 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국제 추모행사, '턴투워드 부산'



[출처 : 국가보훈처]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도움과 희생을 기리는 세계적인 추모행사다.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11-11-11.

11월 11일 오전 11시, 전 세계가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했다.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행사인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이다. 3년 1개월간 계속된 6·25 전쟁의 포성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멈췄다.

그러나 이 전쟁은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으로서 이국 땅에서 목숨을 바친 22개국의 젊은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새로 정한 기념일, '턴투워드 부산'. 규모가 점차 커져 이제는 세계적인 추모 행사로 자리했다.



'부산을 향해 하나 되는 순간!'
Turn Toward Busan

세계적인 추모 행사로 자리한 턴투워드 부산. 이 행사는 캐나다 참전 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의 제안으로 2007년 처음 열렸다. 가상 인터뷰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알아보자.



턴투워드 부산 행사를 제안하고 성사시킨 빈센트 커트니 씨. (6·25 참전용사)



'턴투워드 부산'을 알리는 포스터.

Q 1. 제안 동기는 무엇인가요?

"내 전우들이 이곳 부산유엔기념공원에 묻혀있어요.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한 날을 정해서 유엔공원을 향해 묵념과 추모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Q 3. 행사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는 뜻깊은 국제 추모 행사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회입니다."

Q 2. 이 행사는 언제 처음 열렸나요?

"2007년 11월 11일 처음으로 열렸어요. 이날 7개 나라의 참전 용사가 한자리에 모였죠.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도 11월 11일 오전 11시, 1분 동안 묵념으로 턴투워드 부산에 동참하세요."

Q 4.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지요.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조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 전몰장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1월 11일 11시에 전 세계에서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을 올리는 국제 추모 행사.

1.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 무엇인가요?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맞춰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참전 22개국이 참여하는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6·25 전쟁 중에 전사한 유엔 전몰장병이 묻힌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추모 묵념을 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국제 추모 행사예요.

이 행사는 6·25 전쟁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Vincent R. Courtenay)'의 제안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7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가 참여하여 2007년 11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처음 열렸으며, 2015년 이후 대한민국과 참전 22개국에서 참여하는 국제적인 추모 행사로 확대되었어요.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국군과 유엔 전몰장병의 거룩한 공헌을 기리는 것은 물론, 참전 22개국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적인 추모 행사인 동시에 뜻깊은 보훈 기념일이랍니다.

2. 행사를 제안한 '빈센트 커트니'(Vincent R. Courtenay)는 누구인가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 가입한 많은 나라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조차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도 한국이란 나라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소식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왔어요. 빈센트 커트니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당시 그는 열여

섯 살의 캐나다 소년이었어요.

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많은 동료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던 그는, 전쟁이 끝났지만 계속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부산에 만들어진 유엔 묘지를 찾았을 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유엔군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잠든 부산을 향해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추모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이 생각을 우리나라에 제안했어요.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커트니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3. 왜 11월 11일 11시에 1분 동안 부산을 향해 묵념하나요?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의 슬로건은 '부산을 향해, 하나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묵념을 하는 것일까요?

1분 묵념의 이유는 숫자 1이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1)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산을 향하는 이유는 당연히 부산에 유엔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곳은 한국의 부산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일에는 세계와 하나 되어, 부산에 잠든 유엔군이 지키려고 했던 평화와 정의를 생각하며 1분간 묵념에 참여해 보아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해 보아요.

턴투워드 부산 추모 행사 참여방법

11월 11일 오전 11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부산을 향해 1분 동안 묵념을 올린다.

전몰장병

전쟁터에서 싸우다 희생된 장군과 병사를 가리키는 말.

기념일 속 이야기

>> 6·25 전쟁(1950. 6. 25.~1953. 7. 27.)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1,129일(3년 1개월)간 계속되었어요. 광복을 맞은 지 5년 만에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을 남겼지요.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비극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11월 11일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 열리는 11월 11일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자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고, 미국에서는 참전(제대)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추모 감사하는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기도 하지요.

기념일 속 명소 탐방!



유엔기념공원



- 📍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93 (남구 대연4동 779-1)
- 🕒 **관람시간** 10월~4월 09:00~17:00, 5월~9월 09:00~18:00 (연중무휴)
- ☎ **전화** (051) 625-0625
- 🌐 **홈페이지** www.unmck.or.kr
- 🗣 **어떤 곳인가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서, 6·25 전쟁 당시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2,300여 명의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을 시작해 같은 해 4월 완공됐다. 6·25 전쟁 참전국의 기념비와 사진 자료, 추모비 등이 전시되어 있어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유엔평화기념관

- 📍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6
- 🕒 **관람시간** 10: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 ☎ **전화** (051) 901-1400
- 🌐 **홈페이지** http://www.unpm.or.kr
- 🗣 **어떤 곳인가요?** 전쟁의 참상과 정전협정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교육장이며, 유엔군 등 6·25 참전자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공간으로 조성.



6·25 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
“감사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보훈처]

22개 나라로 구성된 유엔군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큰 역할을 했다. 유엔기 아래 한 곳에 모인 참전 국가 깃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UN은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군 격퇴와 이를 위한 원조를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22개나라에서 연인원 195만여 명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했다. 이들 가운데 3만 8천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끝이났다. 정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2013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준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7월 27일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90만 국군과 연인원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보훈기념일.

1.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은 무엇인가요?

7월 27일은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에요.

2013년에 제정된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켜준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과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통해 미래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날이기도 해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답니다.

2. 유엔군(국제 연합군)은 무엇인가요?

유엔군(국제 연합군)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 회원국들의 병력으로 편성한 군대를 말해요. 6·25 전쟁 당시 세계 22개국에서 연인원 195만여 명이 참전하였는데, 이 중 전투 지원이 16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의료 지원은 6개국(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이었어요. 이 가운데 터키는 ‘**피를 나는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요.

이외에도 물자 지원국 38개국, 물자 지원 의사 표명국 3개국까

도움 한 나라 더

피를 나는 형제나라

터키를 가리키는 말. 6·25 전쟁 당시 2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함.

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는 모두 63개국에 이른답니다.

세계의 자유와 평화라는 큰 뜻을 위해 이름도 몰랐던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군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어요. 이 가운데 3만 8천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지요. 그중에서도 참전 병력 90% 이상을 지원했던 미군이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도 지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또한, 북한의 전쟁 도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어요.

>> 유엔(UN / United Nations / 국제연합)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5년 10월 24일에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예요.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인 국제기관으로, 국제연합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오후 3시 30분(한국 시각 9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 북한과 함께 동시에 가입했답니다.

기념일 속 이야기



>> 죽어서야 만날 수 있었던 남편과 아내

2015년 5월 24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호국의 다리에서 65년 만의 '사후 재회(죽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나는 것)'가 이루어졌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6·25 전쟁 중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미국 참전용사 제임스 엘리엇 중위와 그의 아내 알딘 엘리엇 블랙스톤이에요. 제임스 엘리엇 중위는 29세 때 부인과 어린 자녀를 두고 1950년 6·25 전쟁에 참여했고, 같은 해 8월 27일 낙동강 전투 당시 야간 경계근무를 나간 뒤 실종되었어요.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던 알딘 엘리엇 블랙스톤이 세상을 떠나자 자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골을 아버지가 잠들어 있을 낙동강에 뿌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요.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떠났던 아버지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에 의해 극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실종된 미국 참전용사 제임스 엘리엇 중위의 딸 조르자 레이번과 아들 제임스 L 엘리엇이 칠곡군 호국의 다리에서 어머니의 유골 가루를 낙동강에 뿌리고 있다.





유엔군 참전 및 피해현황(국내도착순)

지원 구분	참전국		참 전		피 해							
			연인원	참전형태	계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전투 지원 (16)	미	국		1,789,000	육·해·공군	133,996	33,686	92,134	3,737	4,439		
	영	국		56,000	육·해군	4,909	1,078	2,674	179	978		
	호	주		17,164	육·해·공군	1,584	340	1,216		28		
	네	덜	란드		5,322	육·해군	768	120	645		3	
	캐	나	다		26,791	육·해·공군	1,761	516	1,212	1	32	
	프	랑	스		3,421	육·해군	1,289	262	1,008	7	12	
	뉴	질	랜드		3,794	육·해군	103	23	79	1		
	필	리	핀		7,420	육군	468	112	299	16	41	
	터	키			21,212	육군	2,365	966	1,155		244	
	태	국			6,326	육·해·공군	1,273	129	1,139	5		
	남	아	공	화	국		826	공군	44	36		8
	그	리	스			4,992	육·공군	738	192	543		3
	벨	기	에			3,498	육군	440	99	336	4	1
	룩	셈	부	르크			100	육군	15	2	13	
	에	티	오	피	아		3,518	육군	658	122	536	
	콜	롬	비	아			5,100	육·해군	689	213	448	28
의료 지원 (6)	스	웨	덴			1,124	적십자병원					
	인	도				627	야전병원	26	3	23		
	덴	마	크			630	병원선					
	노	르	웨이			623	이동외과병원	3	3			
	이	탈	리	아			128	적십자병원				
	독	일				117 (의사)	적십자병원					
합계	22개국			1,957,733		151,129	37,902	103,460	3,950	5,817		

*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통계로 본 6.25전쟁」단, 독일은 국방부 국제정책과 확인

기념일 속 명소 탐방!



유엔군 초전기념관

/ 유엔군과 북한군이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경기도 오산시 죽미령에 건립한 기념관.



- 📍 **위치**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742
- 🕒 **관람시간** 09:00~18:00(입장마감 17:00)
- ☎ **전화** (031) 377-1625
- 🌐 **홈페이지** <http://www.osan.go.kr>

📌 **어떤 곳인가요?** 1950년 7월 5일 미 제24사단 21연대 1대대의 B.C.중대와 52포병대대 장병 540명은 경기도 오산의 죽미령에서 북한군을 맞아 6시간 15분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희생된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자는 뜻에서 만든 기념관이다. 기념관에서는 상설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7월 5일 유엔군 초전기념 및 전몰장병 추도식을 갖고 있다.

유엔군 초전기념비

/ 6·25 전쟁 때 유엔군이 북한군과 벌인 첫 전투를 기념하고, 이때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 1955년 7월 미군 제24사단이 세웠고, 1982년 4월 경기도가 다시 만들었다.



일요일 대구에 울려 퍼진 고교생들의 외침
“정의를 위해 나아가자!”



[출처 :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 경북고를 비롯한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구 중심가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시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결의문’을 읽고 거리로 나섰다. ‘2·28 민주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학생들은 독재정권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8개 학교 학생과 합류해 ‘학원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다.

경찰 폭력에 시민 시위 가세

경찰은 민주와 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체포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시민 가운데 오히려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나서는 사람이 점점 늘었고, 이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한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씨앗’이다.

정·부통령 선거기간, 교육 당국이 야당 부통령 후보가 연설하는 날에 학생에게 강제 등교를 지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항의하여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주주의 실천 운동이다.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됨.

1. 2·28 민주운동은 왜 일어났나요?

독립운동가로서 우리나라의 첫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발전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데 힘을 썼어요. 이승만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억압했어요. 또한 이승만은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국민들은 이승만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어요.

먼저, 2대 대통령 선거제도는 원래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에게 등을 돌리자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제로 바뀌어 당선되었어요. 두 차례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은 계속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당시 헌법으로는 2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었지요. 이승만은 이 헌법을 바꾸어 3대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어요. 그러나 이승만과 자유당이 정치를 못 하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렸어요.

마침 4대 대통령 선거와 5대 부통령 선거가 1960년 3월 15일로 정해졌어요.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도 무 한 마 더

자유당

이승만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뒤 군소정당으로 존재했으나 1970년 없어졌다.

장면

일제강점기 교육가이며 해방 이후엔 정치가로서 제 4대 부통령을 역임함.

는 이기붕을 내세웠어요.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기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기붕보다는 민주당의 장면이 될 가능성이 컸어요. 그러자 자유당에서는 온갖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했어요.

마침 대구에서 장면의 연설 유세가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당시 고등학생들은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자유당과 이승만에는 비판적이었어요. 이러한 학생들이 장면의 선거 유세장에 참여하면 국민의 관심이 민주당의 **장면**에 향할 것이라고 걱정했죠.

이에 교육 당국은 2월 28일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임시시험, 영화 관람, 토끼사냥 등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지역 8개 고등학교에 등교를 지시했어요. 이 발표가 알려지자 각 학교 학생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교육 당국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등교 지시를 거부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학생들은 시위를 계획하고 결의문을 만들었어요. 당일인 2월 28일, 경북고에서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우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라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학교를 나와 불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펼쳤어요.

2. 학생들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참여하다.

학교를 나온 시위 학생들은 대구 중심가로 향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합류했어요. 많은 학생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불의, 잘못을 지적하고 학원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했어요. 경찰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했어요.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잡아갔어요. 이 상황을 목격한 대구 시

민들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해하고, 함께 시위에 참여하거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어요. 저녁 늦게까지 대구지역 고등학생의 시위 참여가 이어졌고 시민의 참여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경찰의 가혹한 시위 진압이 계속되면서 당일 약 220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갔고, 각 학교의 교사들도 학생을 단속하지 못하거나 학생의 뜻에 따랐다는 죄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3. 2·28 민주운동은 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나요?

이승만과 자유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못할 것이 없었어요. 2·28 민주운동에 참여한 학생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어요. 시위에 참여할 때 생기는 불이익과 어려움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학원의 자유’를 위해 시위를 계획하고 참여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해서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걱정한 자유당은 결국 체포되었던 학생들을 풀어주었어요. 이러한 대구 지역 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시위는 마산, 대전, 부산, 서울 등으로 확대되었어요. 얼마 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4·19 혁명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2·28 민주운동은 4·19 혁명의 시작이며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대규모 학생 민주화 시위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서 볼 때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2·28 민주운동이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기념일 속 인물

» 대구의 고등학생들

당시 경북고등학교의 학생부위원장이었던 이대우 학생은 자신의 집에 학생들과 모여 일요일 등교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하게 만든 당시의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리고 1960년 2월 28일 12시 55분. 이대우 학생은 전날 쓴 결의문을 읽어 학생들

에게 정권의 부정을 지적하고, 민주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어요. 이후 학생들은 거리로 나아가 시위를 시작했어요.

대구의 다른 학교 학생도 자유당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왔어요. 이날 대구 시내에는 민주주의를 간절히 바라는 학생들의 호소와 외침으로 가득했어요. 시위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민주화 운동은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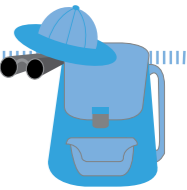
이처럼 2·28 민주운동의 주역은 이대우 학생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한 대구 지역 전체 고등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이재우 군이 밤새 준비한 ‘2·28 결의문’을 읽고있다.

[출처 :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념일 속 명소 탐방!



2·28 민주운동 기념탑

/ 아래는 2·28 민주운동 발원지 표식.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수류동)

☎ **전화** (053) 803-7470

📍 **어떤 곳인가요?**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62년 4월 19일 대구 명덕로터리에 건립됐다. 이후 1990년 2월 28일 두류공원으로 옮겨졌다. 2018년 2월 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국가 기념식을 이곳에서 개최했다.

📌 **꼭 알아야 할 것은?**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2·28 민주운동의 내용,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경북고등학교 2·28 민주운동 기념탑

/ 2·28 민주운동은 대구 경북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이를 기념하는 학교 내 기념탑.



📍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00(황금동)

☎ **전화** (053) 231-4001

📍 **어떤 곳인가요?**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운동장은 2·28 민주운동의 시작지점이다. 이곳에서 학생 대표는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고 외쳤고, 이 함성에 대구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과 시민이 동참하면서 대전, 마산, 서울로 퍼져나가 마침내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2·28 민주운동의 출발 기념탑은 경북고등학교 교정 뒤편에 자리해 있다.

대전 3·8 민주외거 “학생을 정치에 이용 마라!”



[출처: 3·8 민주외거기념사업회]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에 나서면서 3·8 민주외거가 시작됐다.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경찰이 힘으로 막으려 하자 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말리고 있다.

“우리는 오르지 정의감과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시위에 나선다.”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1, 2학년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학생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 자유로운 학교 문화를 보장할 것, 학생 감시를 중단할 것을 외치며 대전 공설운동장까지 행진에 나섰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자 경찰은 골목길마다 막아서고, 폭력으로 진압했다. 또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무차별로 연행하는 등 탄압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했으며, 시위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3·8 민주외거로 확대됐다. 이날 시위는 3월 15일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마산의 3·15 외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데! 알아보기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

3·8 민주외거의 중심에는 고등학생들이 있다. 대전고에서 시작된 시위에 대전상고, 대전공고, 보문고, 대전여고 등 고등학생들이 대전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왜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을까? 네 컷 만화로 그 이유와 3·8 민주외거의 전개 과정을 알아보자.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졌어요

대구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던 거 알지? 그래, 우리도 민주화운동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지

대전 지역 학생들도 정부의 부정부패 규탄, 학교의 자유화 등을 위해 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학원의 자유와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결기문을 작성하고 시위를 합시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에 나섰어요.

하나, 학원의 정치도구화를 단호히 배격한다. 하나,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은 시위 학생들을 폭력으로 진압했고, 학생들은 3월 8일, 10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1960년 3월 8일과 10일, 정·부통령 선거기간 중 이승만 정권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려 한 부정에 대해 대전지역 학생의 시위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민주주의 실천 운동.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됨.

1. 3·8 민주이거는 왜 일어났나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계획에 맞섰던 대구 지역의 2·28 민주운동의 소식은 전국에 알려졌어요.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3월 15일에 있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어요.

3월 8일, 대전 공설운동장에는 야당의 선거 유세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당과 교육 당국은 2월 28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은 잊은 듯했어요. 그 때와 마찬가지로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야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3월 8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어요.

경찰이 시위 계획을 먼저 알고 각 학교에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지만, 3월 8일이 되자 대전고등학교 1, 2학년 천여 명은 학교의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과 자유로운 학교 문화를 보장할 것, 학생 감시를 중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읽고 학교를 나와 행진을 시작했어요.

2. 정의와 순수한 마음으로 뭉친 학생들

3·8 의거에 나서는 학생들의 마음은 당시 발표했던 결의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의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오로지 정의감과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경찰에 연행돼 가면서도 구호를 외치는 대전고등학교 학생들.

[출처 : 3·8 민주이거기념사업회]

이렇게 하나로 뭉친 학생들은 대전고등학교에서부터 유세장인 대전공설운동장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도중에 있었던 골목길마다 막아서고, 학생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했어요. 여기저기서 많은 학생이 다치고 경찰에 체포됐어요. 잡혀가면서도 학생들은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라고 외쳤어요.

3월 8일의 의거는 대전 지역의 다른 학교에도 전달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대전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였지요. 3월 10일에는 대전상고 학생 600여 명을 비롯하여 대전공고, 보문고, 대전여고 등 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대전 시내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어요.

의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생각.



» 3. 3·8 민주주의거는 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나요?

3·8 민주주의거가 3·15 부정선거에 맞선 마산 시위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과 교사, 시민이 자유당 정권의 협박과 강압적인 진압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이에 지지 않고 계속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어요.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3·8 민주 의거를 2018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그 의의를 기억하고 있어요.



[출처 : 대전광역시]



3·8 민주주의거 기념탑

/ 대전 시내 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3·8 민주주의거 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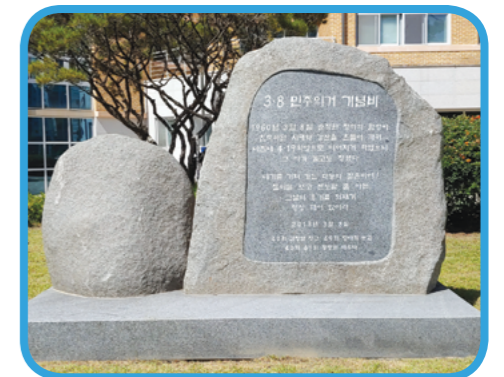
📍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53

📍 어떤 곳인가요? 대전의 명소인 둔지미공원에 있는 3·8 민주주의거 기념탑.

이 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맨손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선구적 학생운동이다. 기념탑의 앞면에는 3·8 민주주의거를 소개하고 있고, 뒷면에는 '증언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다. 이 시를 읽으면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에 저항한 선배들의 굳은 마음을 알 수 있다.

대전고 3·8 민주주의거 기념비

/ 대전고등학교에 있는 3·8 민주주의거 기념비.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10 대전고등학교

📍 어떤 곳인가요? 3·8 민주주의거는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요구와 함께 시작됐다. 이 기념비는 당시 고등학생들의 민주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13년 건립했다.

4·19 혁명의 불씨, 3·15 의거
“부정선거 규탄한다!”



[출처: 3·15 의거기념사업회]

마산 시민들이 1960년 3월 15일 거리로 나서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의 날이 밝았다. 1956년,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1956년 제3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부정부패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한편 이승만의 강력한 경쟁자이던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병을 치료하려고 미국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만 병원에서 유명을 달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더

해 자유당 정권은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온갖 부정 선거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결국 마산 민주당 지부는 부정선거가 너무 심해서 선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많은 시민과 학생이 거리로 나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는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불씨가 됐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날로, 2010년에 국가기념일로 정함.

1.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왜 부정 선거를 하려고 했나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됐어요. 이를 기념하는 날을 광복절이라고 해요. 이후 1948년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상태에서 1952년 치러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직을 거듭해서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두 번 당선되었으니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고쳐서 1956년 결국 제3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때 부터라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유당이 권력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정치를 했다면 국민들도 더는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그 결과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국민들은 더 이상 자유당 독재 정

도 문 간 다

의거

의로운 일을 크게 일으킴.

항의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따지고 반대의견을 밝힘.

수호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

권을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지요. 국민들은 투표를 함으로써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이 진짜 화났음을 알았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 봐, 다시는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을까 봐 겁을 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2. 부정 선거에 항거하다

1960년은 제4대 대통령 선거,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자유당 정권은 다시금 권력을 쥐기 위해 부정 선거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부정 선거가 있었지만 이번은 특히 심했어요. 국민이 자신들을 무척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1960년 2월 28일은 대구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선거운동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자유당 정권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모두 학교에 나오게끔 지시했어요. 28일은 일요일이었는데, 고등학생들이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선거 연설에 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죠. 당시 고교생들은 정치에 꽤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25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 학생들은 비밀리에 모여 28일에 학교에 가서 항의 시위를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침내 28일 일요일이 됐어요. **2·28 대구 학생운동**은 경북고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경북고 학생 800여 명은 운동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살리자!”, “학원에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대구 시내로 나갔어요. 경북고를 시작으로 대구



[출처 : 3·15 의거기념사업회]

고, 경북여고, 경북사대부고 등 학생들이 물밀 듯이 시내로 쏟아져 나왔어요. 많은 시민은 학생들의 시위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시위는 이날 저녁 7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고 말았어요. 경찰은 시위를 주도한 학생 30명 등 300여 명의 학생을 경찰서에 데려왔지만, 민심이 무서웠던 자유당은 고교생들을 전부 풀어주라고 경찰에 지시했어요. 경찰은 대구 고교생들을 모두 풀어줬지요. 대구 고교생들의 시위는 전국 고등학교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길은 마산에서도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3. 마산 3·15 의거는 왜 일어났나요?

제4대 대통령 선거는 자유당 정권에 아주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이승만을 상대할 수 있는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만 그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만 거예요. 자유당은 환호성을 올렸지만, 국민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당선 확정됐지만, 아직 부통령 선거가 남았지요. 국민들은 부통령만이라도 민주당 후보인 장면이 되길 바랐어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유당은, 자유당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악의 부정 선거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반공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공무원들까지 부정선거에 개입해 국민에게 자유당에 투표할 것을 강요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15일 아침, 마산 민주당이 선거 포기를 선언하자 수많은 시민과 학생이 거리로 나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어요. 경찰이 시위대에 총을 쏘자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졌고, 다른 시위대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경찰에 체포당한 학생과 시민은 혹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정부의 강경한 진압에 시위가 가라앉을 무렵, 1차 의거 때 행방 불명이 됐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바닷가에서 발견되었어요. 얼굴

장면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교육자이자 해방후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가.

2·28 대구 학생운동

2·28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참가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대구상업고등학교(지금의 대구상원고등학교), 대구농림고등학교(지금의 대구자연과학 고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 8곳이다.

조병옥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 겸 정치가.

주검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도화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에 최루탄이 박힌,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마산 시민들은 이에 격분하여 제2차 의거를 일으켰어요.

이 의거에서 2명이 희생되고 250명이 다치거나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마산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마침내 전국으로 확대되어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기념일 속 인물



>> 김주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

1960년 김주열 열사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형과 함께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마산에 왔다고 합니다. 3월 14일,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김주열은 3월 15일 마산에서 전개된 부정 선거 반대 시위에 참여했어요.

당시 17세였던 김주열 열사는 이 시위에 참여한 후 행방 불명이 되었지요. 아들의 행방불명 소식에 남원에서 달려온 어머니는 마산 시내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아들을 찾지 못하고 4월 11일 남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11시경, 마산 중앙 부두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에 의해 김주열 열사의 주검이 발견되었지요.

마산 시민들은 분노했고, 잠시 잠잠했던 시위는 들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국 규모의 시위로 퍼져나갔어요.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4월 13일 밤 11시 마산에서 출발하여 14일 아침 남원 선산에 묻혔어요. 그의 고귀한 죽음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답니다.



김주열 열사.

[출처: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

기념일 속 명소 탐방!



국립 3·15 민주 묘지

/ 3·15 의거 유공자 분들이 잠들어 계시는 곳.

- 📍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성역로 75
- 🕒 **참배시간** 하절기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연중무휴)
- ☎ **전화** (055) 253-9315
- 🌐 **홈페이지** 315.mpva.go.kr
- 🔍 **어떤 곳인가요?**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일어났다. 자유와 정의를 외치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장소.
- 📌 **꼭 보아야 할 것은?** 구겨진 종이의 조형물이 상징하는 부정 선거, 정의의 벽과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는 시(진혼가, 베고니아의 꽃잎처럼, 피땀 장미꽃 위에 나뭇잎은)는 꼭 보는 것을 추천한다. 3·15 의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4·19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곳에서는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대구·대전·마산 시위... 4·19 혁명으로 폭발
독재 정권 무너지다!



[출처: 국가기록원]

1960년 4월 19일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독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60년 4월 18일

‘그날’이 밝았다. 전국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 선거에 맞서 일어섰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3·15 마산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1960년 4월 19일

경찰과 모의한 반공청년단은 고려대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에 분개한 학생과 시민들은 다음 날인 19일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고, 그동안 지역별로 이어지던 저항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졌다.

국민, 승리하다

초·중·고등학생까지 가세한 시위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시위에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사퇴하고 망명 길에 올랐다. 자유와 민주, 정의의 향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1960년 4월 19일 3·15 부정 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으로, 시민들이 가세하며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

1. 4·19 혁명은 무슨 날인가요?

우리는 앞에서 대구 2·28 학생운동이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3·15 의거의 불씨가 꺼질 때쯤 김주열 열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시위가 다시 시작돼서 전국을 뒤덮을 정도로 번진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은 반성도 하지 않고 마산에서 일어난 의거는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이에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산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경찰의 대학 출입 금지와 평화적인 시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평화롭게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맞이한 건 경찰과 **모의한 반공청년단**이었어요. 불법 단체였던 **반공청년단** 소속 사람들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마구 때렸어요. 학생들은 거리에 쓰러졌지요.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군.”

“그럼요. 혼 좀 났으니 조용해질 겁니다.”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은 이번 일로 대학생들이 시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4월 19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

도·무·한·마·더

모의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함.

반공청년단

1960년 자유당이 3·15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계엄령

대통령이 국가 비상 시 헌법의 일부 기능을 일시 정지하고 군인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도록 내리는 명령.

총재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망명

정치나 사상, 종교 등의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탄압이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감.



4.19 혁명 당시 거리에 모인 시민들. (출처: 국가기록원)

했으니까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서울에선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섰지요. 시민들의 시위 참여에 놀란 자유당 독재 정권은 급기야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군인이 아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먼저 총을 쏘면서 문제가 되었어요.

탕·탕·탕!

이 충격으로 전국에선 어린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18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부상자 또한 6,026명이나 되었지요.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 부통령을 그만두게 하고 자유당 **총재**에서 물러나며 경찰에 잡힌 학생과 시민들을 풀어 주었지만, 사태를 건잡을 수 없었어요. 4월 25일과 26일에는 서울 시내 대학 교수들도 서울 시내에서 시위에 참여하였어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하고 5월 29일 한국을 떠나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어요. 마침내 국민이 승리한 것이지요.

비록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를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2. 4.19 혁명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자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을 행정부의 우두머리로 한 임시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총선거가 시행되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1당이 되었지요. 이에 장면이 총리,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과 잦은 시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개혁정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장면 내각은 무너지고,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도 이날 이후 다시 시련의 길을 걷게 됩니다.

3.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의원내각제

4.19 혁명으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무너졌어요. 헌법도 고쳐 대통령 중심제를 버리고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지요.

의원내각제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민주당이 총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로 인하여 장면이 총리가 되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윤보선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관계로 국가 원수 대접만 받았어요. 실제적인 권력은 총리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는 1년도 못 되어 폐지되었어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장면 내각을 무너뜨렸고,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꾸었기 때문이랍니다.

윤보선

4.19 혁명으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붕괴된 뒤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됨.

정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기념일 속 이야기



>>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13년부터 시작된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립 4·19 민주묘지 및 서울시 강북구 일원에서 열려요.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4·19 혁명 국민문화제 홈페이지: <http://www.festival419.org> 참조

>> 4·19 의거인가요, 4·19 혁명인가요?

한동안 4·19로 불리다가 1993년 국민이 수립한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비로소 4·19 혁명으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았지요. 그 결과 4·19 묘지도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습니다.

>> 4·19 혁명의 전개 과정

대구 2·28 학생운동(의거) → 3·15 부정 선거 → 마산 3·15 의거 → 4·18 폭력 조직인 반공 청년단의 고려대생 테러 → 4·19 혁명 → 대학교 교수들의 시위와 전 국민의 저항 →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남과 하와이 망명, 자유당 없어짐 → 장면 내각 탄생 →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남 → 4·19 혁명은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혁명

기념일 속 명소 탐방!



국립 4·19 민주묘지

/ 4·19 민주묘지의 기념탑을 배경으로 열린 4·19 혁명 기념식 모습.

📍 **위치** 서울시 강북구 4.19로 8길17(수유동 산9-1)

🕒 **참배시간** 동하절기 09:00-17:00

☎ **전화** (02) 996-0419

🌐 **홈페이지** 419.mpva.go.kr

📌 **어떤 곳인가요?** 4·19 민주묘지는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한 자유당 정권에 맞서 분연히 일어서서 저항했던 민주화의 영웅들을 모신 묘역이다. 권력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정의의 실현을 위해 몸을 바친 영령들이 이곳의 주인공이다.

📌 **꼭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이룬 값진 결실이다. 4·19 혁명은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430명이 넘는 민주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가 있으며, 현장 또는 사이버 참배를 할 수 있다. 이곳의 상징은 높이 21m의 '4월 학생혁명기념탑'. 1962년 11월 설립에 나서 1963년 9월 20일 완성됐다. 국립 4·19 민주묘지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기념탑. 매년 4·19 혁명 기념식이 열리는 곳이다.

📌 **꼭 봐야 할 곳은?** 4·19 민주묘지 한켠에 있는 4·19 혁명 기념관은 꼭 둘러 보자. 1층은 4·19 혁명의 배경과 내용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2층은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재평가에 대한 각종 정보와 유물이 있고,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 4·19 민주묘지 정문을 지나 우측 끝까지 가면 기념관이 있다. 4·19 혁명 기념관 내부 모습.



5월 18일~27일, 5·18 민주화 운동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출처: 광주광역시]

1980년 5월 광주의 낮과 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다. 계엄군의 무차별 폭력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 ▶ 신군부 12.12 군사 반란, 국민들 민주화 요구 목살
- ▶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남대생 잔혹 진압
- ▶ 계엄군 진압에 광주 시민들 거리로 나와 계엄령 해제와 계엄군 퇴진요구, 5·18 민주화 운동 시작
- ▶ 계엄군 추가 투입해 더 가혹한 진압 -> 5월 21일 전남 도청 앞 시위대에 총격 -> 시민들 무장하자 계엄군 철수
- ▶ 계엄군 퇴각 후 광주 고립.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에 평화 -> 단 한건의 범죄 발생하지 않은 시민의식
- ▶ 1980년 5월 26일 계엄군 '상무총정작전'으로 광주 진입 -> 5월 27일 전남 도청 공격 -> 막 내린 시민군의 저항 ->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상 비극적인 사건의 하나.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하고 마음 아파함. 국가는 5월 계승 운동의 일환으로 1997년 5월 법정 기념일로 제정.

1. 1979년 가을부터 1980년 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1) 12·12 사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쏜 총탄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이로써 유신 체제가 막을 내렸지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맡겼어요. 하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를 경계했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넘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와 장태완, 정병주 등을 강제로 끌고갔어요. 대통령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죠.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위협에 13일 새벽 정승화의 불법 연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12·12사태라고 해요.

(2)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벌어진 민주화 운동 시기를 말해요. 1980년 봄, 당시 국민들

도 운동 기간 다

시해

부모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음을 당함.

신군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비공식적으로 조직한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권을 잡은 군 장성들을 가리키는 말.

연행

강제로 데리고 감.

규탄

잘못이나 옳지 못한 일을 잡아내어 따지고 나무람.

프라하의 봄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 자유화운동.

은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어요.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특히 당시 정치인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었어요. 정치인들은 모여서 5월 20일에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욕심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학생들과 시민들은 신군부를 믿지 못하게 되자 5월 14일과 15일에 거리로 나와 그들을 **규탄**했어요.

신현확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며 시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지요. 학생과 시민들은 정부 말을 믿기로 하고 시위를 멈추고 모두 집으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신군부는 국민들을 배신했어요. 그들은 5월 17일 밤 12시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며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들을 체포했어요. 5월 20일에 열려고 했던 국회도, 대학교도 문을 닫았죠. 공수부대 등 군부대도 투입됐어요. 이로써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의해 막을 내렸어요.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비극인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되었지요.

(3) 5·18 민주화 운동

서울에서 시작한 민주화를 위한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어요. 그러자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을 더욱 탄압했어요. 대학생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휴교령을 내리고 군인들을 학교마다 배치했어요.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입구를 막고서, 학교로 들어가려는 대학생들을 곤봉으로 때렸어요. 이에 대학생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저항하며 외쳤어요.

“학교 가는 걸 왜 막느냐, 휴교령을 철회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학생들이 계엄군의 손에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화가 나서 군인들에게 “왜, 죄 없는 학생들을 그리 심하게 때리냐!”고 항의했어요. 그러자 계엄군은 항의하는 시민들도 마구 붙잡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계엄군의 시위 진압 모습에 광주 시민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항의하는 시민들도 가혹하게 다루어졌어요. 공수부대 계엄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광경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졌어요. 5월 19일엔 11공수여단을 추가로 광주에 보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가혹하게 진압하도록 했어요. 20일에는 3공수여단이 광주로 보내졌어요.

21일에는 전남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쓰러졌어요.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하자 시민과 학생도 대응하기 위해 무장했어요. 그리고 계엄군과 맞서 싸웠지요. 계엄군은 일단 철수하기로 하고 21일 광주에서 물러났어요.

계엄군이 물러난 21일부터 25일까지의 광주는 평화로웠어요.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품이 부족하면 너도나도 채워 주었어요. 5월 26일 계엄군은 ‘상무총정작전’이란 작전명으로 광주로 다시 들어왔고, 결국 27일 전남 도청을 마지막으로 시민군의 저항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기념일 속 인물

» **푸른 눈의 목적자, 위르겐 힌츠페터**

위르겐 힌츠페터는 5·18 민주화 운동의 비극적인 모습을 방송용 필름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예요. 그는 일본 특파원이었는데 광주에서 큰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는 5월 20일 오전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몰래 들어갔어요. 당시 광주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그는 그날의 충격적인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서 종군기자로 활동할 때도 이렇듯 참혹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필름에 담은 광주의 참상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부가 광주의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폭도’가 광주를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만 국민들에게 알려졌지요.

만약 그가 없었다면 광주의 진실은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몰래 찍은 광주의 참모습을 양철 깡통에 넣고 과자 더미 속에 숨겨서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독일 제1 공영방송 뉴스 시간에 방송됐어요. 또 여러 나라에서 그의 필름을 받아 뉴스 시간에 내보내 전 세계가 광주의 비극을 알게 되었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주의 참상을 기록한 영상을 알게 된 건 몇 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취재활동을 하다가 1986년 11월에 광화문에서 경찰에 의해 큰 부상을 당한 뒤 1995년 기자 생활을 그만두었어요.

“내 필름에 기록된 것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는 자기가 죽은 다음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2016년 1월, 8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고 2016년 5월 16일 그의 유언대로 손톱과 머리카락 그리고 유품 등이 국립 5·18 민주 묘지에 안장되었답니다.



국립 5·18 민주 묘지에 위르겐 힌츠페터의 손톱, 머리카락, 유품이 안장돼 있다.

기념일 속 명소 탐방!



국립 5·18 민주 묘지

/ 국립 5·18 민주 묘지 상징탑으로 높이 40m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운정동 산 34번지)

🕒 **참배시간** 동하절기 09:00-18:00

☎ **전화** (062) 268-0518

🌐 **홈페이지** 518.mpva.go.kr

📌 **어떤 곳인가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국민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곳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다른 국립 묘지처럼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참배도 가능하다. 특별히 어린이 체험관을 운영한다. 애니메이션 상영(민토야! 민주마을을 구해줘), 어린이 참배하기, 판화 찍기(추모탑, 추념문, 참배 모습), 종이 국화 만들기 등이 있다. 예약 (062) 268-5189

우리가 알아야 할
보훈기념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인쇄일 2019년12월
발행일 2019년12월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인터넷 <http://edu.mpva.go.kr>
전 화 1577-0606 (대표)